목차

1. 들어가며

- 웅혼한 성당기상(盛唐氣象)의 詩

2. 기상이 넘치는 이백의 詩

1) 笑而不答(소이부답)

2) 天生我才必有用 (천생아재필유용)

3) 長風破浪(장풍파랑)

3. 맺으며

- 천하제일의 快詩

1. 들어가며

웅혼한 성당기상(盛唐氣象)의 詩

8 漢詩를 배워야 하는 이유

9 漢詩 중 최고봉은 성당시(盛唐詩)

10 태산을 바라보며 – 두보(杜甫)

11 관작루에 올라 – 왕지환(王之渙)

漢詩를 배워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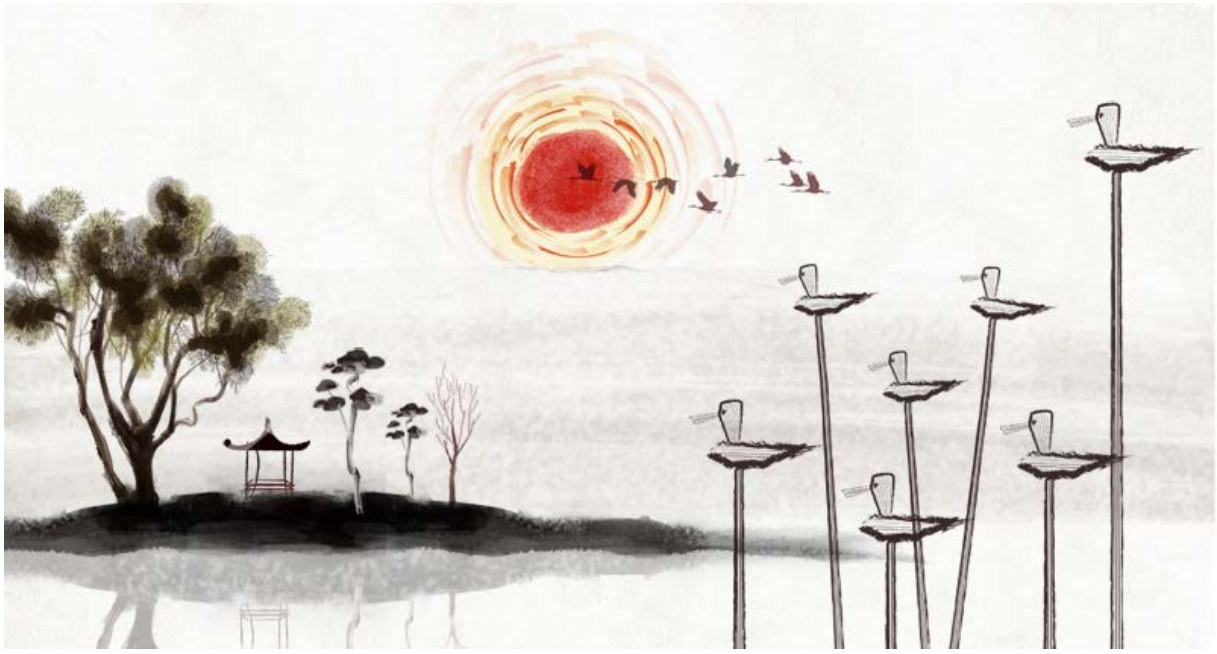
- 中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漢詩를 활용
- 공자가 아들에게 강조한 것!

> 不學詩, 無以言
>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 - 논어 中

- 남을 설득, 감화시키는 데 漢詩가 효과적

공리(孔鯉)

공자(孔子)



漢詩 중 최고봉은 성당시(盛唐詩)

◘ 성당시는 개원성세(개원지치)*의 기상이 담긴 詩

*開元盛世 : 당나라 현종이 다스린 개원(開元) 연간의 치세(8세기)

◘ 성당기상을 만든 시대적 배경

정치적 안정	강대한 군사력에 의한 변방안정
경제적 풍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문화적 부흥	비단길을 통한 각국의 문화융합

→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사회분위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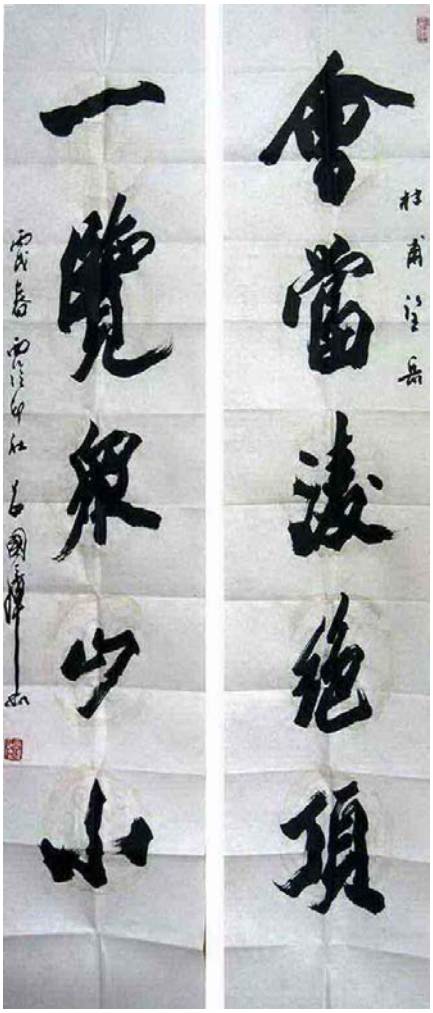
◘ 성당시의 총체적인 특징

- 필력웅장(筆力雄壯) 기상혼후(氣象渾厚)

태산을 바라보며

두보(杜甫)

태산은 대저 어떠한가
제로에 걸쳐 그 푸르름이 끝이 없구나.
조물주는 수려함을 모아놓았고
산의 남북은 밝고 어두움이 다르도다.
씻겨진 가슴에는 흰구름이 일고
흘겨 바라보는 눈에는 새들이 들어온다.
반드시 저 산꼭대기에 올라
자그마한 뭇 산들을 내려다 보리라.



望嶽

岱宗夫如何? 齊魯□未了°
造化鍾神秀, 陰陽割昏曉°
蕩胸生層雲, □□入歸鳥°
會當凌絶頂, 一覽衆山小°

※ 2003년 원자바오, 2006년 후진타오가 中·美회담에서 인용

관작루에 올라

왕지환(王之渙)

밝은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간다
천리 끝까지 바라보고 싶어
지금 한 층 더 오른다

登□雀樓

白日依山盡, 黃河入海流°
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

2. 기상이 넘치는 이백의 詩

14 | 이백(李白)

15 | 1. 笑而不答 - 현재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

17 | 2. 天生我才必有用 - 자신의 재능에 대한 무한한 낙관

20 | 3. 長風破浪 - 꿈의 실현에 대한 무한한 확신

이백(李白)

-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青蓮居士)
- 시선(詩仙)으로 불리며 시성(詩聖) 두보와 쌍벽
- 술과 달을 사랑했던 낭만파 시인
- 천여수의 작품을 남긴 거성

<사진출처: http://wenhua.langya.cn>

1. 笑而不答 - 현재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

- 이백은 25세에 뜻을 펼치기 위해 고향을 떠났으나 수년간 일이 안 풀려 좌절
- 초라해진 처지에 낙담하던 중 침상에서 본 '달빛'에 힘을 얻어 재기

정야사

침상에 비치는 밝은 달빛
마당에 서리 내린 줄 알았네.
고개 들어 밝은 달을 쳐다보다
고갤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靜夜思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擧頭望明月,
低頭思故鄕°

- 이후 재상가의 허씨 규수와 혼인한 후
  안륙의 한 산중에서 공부하며 때를 준비

- 사람들은 이백이 재상 가문에 기대어 한 몫 잡으려 한다고 의심
  "젊은 사람이 왜 산중에서 그러고 있소? 대체 무슨 꿍꿍이요?"
  이에 대한 이백의 답

왜 사냐고 묻거든

이백

뭣 하러 푸른 산에 사느냐구요?
허허 그걸 꼭 말해야 하나요?
저기 복사꽃
물길 아득히 흘러가는 것 보이나요?
이곳은 다른 하늘과 땅
당신이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山中問答

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2. 天生我才必有用 - 자신의 재능에 대한 무한한 낙관

- <장진주>는 이백의 호방한 詩 중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
  - '장진주'는 '한잔 하시오'라는 술을 권하는 말
- 이백은 세상에서 功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나 번번히 좌절
- 이백 특유의 호방함과 깊이 쌓인 울분이
  <장진주>와 같은 천고의 걸작을 탄생

장진주

이백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흘러와
바다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고대광실 밝은 거울 속 슬픈 백발을
아침에는 푸른 실 같더니
저녁에는 백설이 되었다네

인생이 득의하면 즐겨야 하는 법
황금 술잔이 빈 채로
밝은 달을 대하게는 말아야 하리.

하늘이 나를 낳으니 쓸 데가 있을 터
천금은 다 쓰면 다시 돌아오는 법.
양을 삶고 소를 잡아 즐기며
한번 마시면 삼백잔은 마셔야지.

<중략>

將進酒

君不見□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不復回°
君不見高堂明□悲白髮,
朝如□絲暮成雪°
人生得意□盡歡,
莫使金樽空對月°
天生我材必有用,
千金散盡還復來°
烹羊宰牛且爲樂,
會須一飮三百杯°

MEMO

3. 長風破浪 - 꿈의 실현에 대한 무한한 확신

- 이 시는 인생길의 어려움을 읊은 노래
- 천하의 才人으로 태어난 이백도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아 울분과 탄식이 가득

> '황하를 건너자 했더니 얼음이 강을 막고,
> 태항산을 오르려 했더니 눈이 산에 가득하
> 네'

- 하지만 끝내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이백

> '언젠가 큰 바람이 불어오면
> 나는 그 바람을 타고 大鵬처럼 날리라'

행로난

이백

금잔의 청주는 만금이요
옥반의 진미는 만전이라
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던지고는
검을 빼어들고 사방을 바라보나니,
가슴이 막막하다

황하를 건너자 했더니
얼음이 강을 막고
태항산을 오르려 했더니
눈이 산에 가득하네

푸른 시내 낚시는 한가로운데
해 뜨는 곳으로 가는 배의 꿈이여!
인생길의 어려움이여, 어려움이여!

수많은 갈래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큰 바람이 물결을 깨치는 날이 반드시 오리니
구름 같은 돛을 곧장 펴고 드넓은 창해를 넘어가리라

行路□

金樽□酒斗十千,
玉□珍羞直萬□°
停杯投箸不能食,
拔劍四顧心茫然°
欲渡□河□塞川,
將登太行雪□山°

閒來垂□碧溪上,
忽復乘舟夢日邊°
行路難, 行路難,
多□路, 今安在°
長風破浪會有時,
直□雲帆濟滄海°

3. 맺으며

천하제일의 '快詩'

탄식에서 환희로

- 천보 원년(742년), 마침내 이백에게 장안으로 오라는 황제의 조서가 하사
  - 이백의 詩와 명성이 천하를 가득 채웠고 마침내 황제는 그를 장안으로 부르게 된 것
  - 황제는 이백에게 한림원 벼슬을 주고 측근에 두었으니 그의 나이 42세
- 이백은 出仕를 위해 집을 떠나면서 환희의 찬가를 낭송

남릉에서 아이들과 헤어져 장안으로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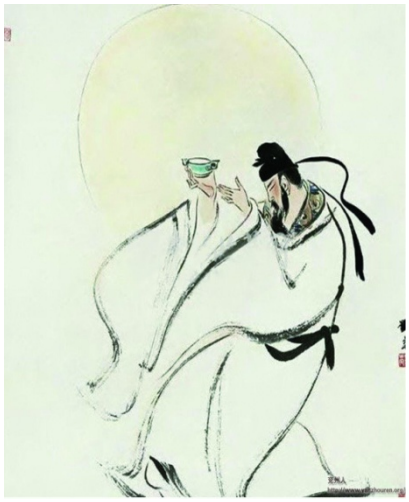
이백

막걸리 익어 산중에서 돌아오니
기장 쪼는 누런 닭이 통통한 가을.
아이 불러 닭을 잡고 막거리를 마시니
아들 딸은 희희덕 옷을 잡고 늘어진다.
노래와 술로 스스로를 대견해 하고
춤추며 저녁 햇살과 빛을 다툰다.

천자에게 유세하는 것 진실로 늦었나니
채찍 쥐고 말 달려 먼 길 어서 가련다.
회계의 어리석은 아낙 주매신을 깔보았지만
나도 집을 떠나 서쪽 장안으로 들어간다네.
하늘을 우러러 한바탕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나니
내 어찌 평생을 초야에 묻혀 살 사람이더냐.

南陵別兒童入京

白酒新熟山中歸,
□鷄啄黍秋正肥°
呼童烹鷄酌白酒,
兒女嬉笑□人衣°
高歌取醉欲自慰,
起舞落日爭光□°



游說萬乘苦不早,
著鞭跨馬涉遠道°
會稽愚婦輕買臣,
余亦辭家西入秦°
仰天大笑出門去,
我輩豈是蓬蒿人°